

올해 세수상황은 지속 점검 중이며, 세입경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5.6.12. 머니투데이는 “추가경정예산에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이 병행될 예정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재정부 입장>

- 현재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세수하방 위험에 대해 점검중이나, 세입경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분석과	책임자	과 장	조문균 (044-215-4120)
		담당자	사무관	김도경 (dkim7258@korea.kr)
	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정민 (044-215-7130)
		담당자	사무관	박근형 (rmsgudkorea@korea.kr)